

EDU-02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1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1. 돈·계좌·결제·예금의 기초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?

- ☐ A. 목적: 오늘 지출인지, 반복 지출인지,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.
- ☐ B.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
- ☐ C.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
- ☐ D.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

2.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?

- ☐ A. 현재 보이는 금액만
- ☐ B. 비용·위험·기한·보호·증거
- ☐ C. 광고 순위와 후기 수
- ☐ D. 친구가 선택한 상품

3.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?

- ☐ A. 기억해 둔다.
- ☐ B.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
- ☐ C. 계약서·설명·거래·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.
- ☐ D.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

4.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☐ A.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
- ☐ B.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
- ☐ C. 신청·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.
- ☐ D.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

5.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?

- ☐ A. 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
- ☐ B.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
- ☐ C.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·기한·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D.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

EDU-02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2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6. 사례 '첫 월급 통장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금융회사별 보호 한도와 보호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비·비상금을 구분한다.
- ☐ B. 로고만 보고 모든 상품이 보호된다고 생각한다.
- ☐ C. 금리가 가장 높은 곳 하나에 전액을 둔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7. 사례 '세 가지 결제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출금일·할부비용·다음 달 필수지출을 표에 적어 비교한다.
- ☐ B. 월 납부액이 작아 보이는 수단을 고른다.
- ☐ C. 혜택 문구가 가장 큰 수단을 고른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8. 사례 '무료 체험의 다음 달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약정·결제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한 뒤 완료 화면을 보관한다.
- ☐ B. 앱만 삭제한다.
- ☐ C. 계좌 잔액을 비워 결제를 막는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9. 사례 '잘못 보낸 송금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 지원을 요청하고 거래 정보를 보존한다.
- ☐ B. 수취인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낸다.
- ☐ C.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10. 사례 '해외 결제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현지통화·원화결제 금액과 환율·수수료·환불조건을 비교한다.
- ☐ B. 표시 가격만 보고 결제한다.
- ☐ C. 카드 정보를 메시지로 보낸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EDU-02 정답과 해설 · 3/3

문항별 정답과 선택지 해설

1. 정답 A

- A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목적: 오늘 지출인지, 반복 지출인지,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.
- B. 이 선택은 '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목적: 오늘 지출인지, 반복 지출인지,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.
- C. 이 선택은 '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목적: 오늘 지출인지, 반복 지출인지,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.
- D. 이 선택은 '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목적: 오늘 지출인지, 반복 지출인지,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.

2. 정답 B

- A. 이 선택은 '현재 보이는 금액만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B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C. 이 선택은 '광고 순위와 후기 수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D. 이 선택은 '친구가 선택한 상품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
3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기억해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C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
4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C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
5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B. 이 선택은 '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C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D. 이 선택은 '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6. 정답 A

- A.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.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,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.
- B. 이 선택은 '로고만 보고 모든 상품이 보호된다고 생각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.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,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.
- C. 이 선택은 '금리가 가장 높은 곳 하나에 전액을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.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,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보호는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.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,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.

7. 정답 A

- A.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.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.
- B. 이 선택은 '월 납부액이 작아 보이는 수단을 고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.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.
- C. 이 선택은 '혜택 문구가 가장 큰 수단을 고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.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월 납부액이 아니라 갚을 날짜와 총비용을 본다. 후불 수단은 이름과 관계없이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계약이다.

8. 정답 A

- A.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.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앱만 삭제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.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.

C. 이 선택은 '계좌 잔액을 비워 결제를 막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.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.

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앱 삭제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. 자동납부와 구독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사업자 화면을 함께 확인한다.

9. 정답 A

A.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.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

B. 이 선택은 '수취인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.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

C. 이 선택은 '다음 달까지 기다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.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

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반환 지원은 빠른 접수와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.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수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

10. 정답 A

A.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. 해외 결제 차단·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.

B. 이 선택은 '표시 가격만 보고 결제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. 해외 결제 차단·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.

C. 이 선택은 '카드 정보를 메시지로 보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. 해외 결제 차단·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.

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환율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총액을 본다. 해외 결제 차단·알림 설정과 카드정보 보관 범위도 확인한다.